

# 은퇴생활 관리에 대한 교회의 역할

김찬목(백석대학교 교수)

##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44세가 되고 고령화 비율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저출산율과 고령화의 심화에 더하여 노령 층의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38만 여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우리나라 평균 가구소득 416만원에 비해 노령가구는 269만 원정도가 되어 상대적 빈곤율이 48.1%에 이른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55세에서 64세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자료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물러난 숫자가 약 383만 명이 되는데, 그 사유는 이러하였다: 정년 29만천 명, 권고·명예·해고 38만8천 명, 조업중단·휴폐업 133만 명, 가족 돌보기 60만 명, 건강 75만 명, 일을 그만 둔 나이가 되어서 9만9천명, 기타 37만8천 명.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고용환경 악화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는 점점 불확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은퇴준비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박정식(201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가정 꾸리기, 자녀들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준비 등으로 노후의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겨를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퇴준비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급변하는 상황은 은퇴 준비에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직장생활 기간 중에 쌓아놓은 연금이 은퇴생활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만족스런 은퇴생활을 할 수 없다. 늘어난 수명에 따라 직장생활과 은퇴생활 기간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은퇴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은퇴 준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시원 외 2006; 여윤경, 2011). 한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은퇴준비지수는 56.7점으로 '주의' 단계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소는 재무·건강·활동·관계영역 등 4개 분야에 걸쳐 은퇴준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를 발간한 바가 있다.<sup>2)</sup>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령화 되고 있는 교회도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본 연구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왔다. 올바른 일이다. 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교인들의 고령화는 사회적 고령화 보다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개인화의 심화는

1) [www.kosis.kr](http://www.kosis.kr), 2014년 10월 8일 현재 KOSIS 100대 지표 자료

2) 삼성생명(주) 은퇴연구소,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교회가 교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평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은퇴와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들을 고찰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은퇴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교회의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각 교회 운영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문헌 고찰

### 2.1 은퇴의 개념

은퇴와 퇴직의 의미는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고,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 되어 있다(네이버사전). 은퇴의 개념은 다양하게 이 정의된다. 은퇴를 주제로 다루는 이론적 논의는 주로 노동공급이론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 이론은 노동-여가 모형에 따르는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동은 소득을, 여가는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은퇴를 노동공급이 영(零)인 상태로 정의한다(이재성외 2008). Guillemard 등은(1993) 은퇴를 “근로 연령과 고연령 간에 있는 생활 단계”로 정의한 반면, 장지연(2003)은 “일정한 연령 이상에 도달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주된 직업으로부터 퇴직한 상태에 있으며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할 의지가 없는 상태”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은퇴의 개념은 주관적 평가, 경제활동 참여여부, 노동시간, 주요 직업의 중단, 연금수급 등의 견지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창제,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sup>3)</sup>에서 사용한 완전은퇴 개념을 적용하여, “생계를 목적으로 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고 이것을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소일거리(예; 텃밭가꾸기)는 생계목적의 근로나 소득활동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은퇴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은퇴를 한 후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은퇴한 후의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들도 많이 있다. Nimrod(2007)는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안녕과 정서적이고 장기적인 안녕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 2.2 은퇴 설계에 대한 연구 내용

매일경제신문은 2014년 9월 22일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가 전 세계 17개국 30세에서 60세 사이의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관련 설문조사(2011년)의 결과를 인용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은퇴’라는 단어에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선진국 응답자들은 ‘자유, 행복’이라는 긍정적

3)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연구원, 제1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 2005, Pa 28.

인 답변을 한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후에도 대체로 직임에 머무는 기간 정도의 생활을 영위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은퇴설계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은퇴기간 동안에 소요될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Hodges, 2004).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Felce 등(1996)은 삶의 질의 영역을 신체적 영역, 물질적 영역, 생산적 영역, 정서적 영역, 권리적 영역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Hagerty 등(1997)은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건강, 재무, 공동체의 소속의식, 일, 정서, 가족친구와의 관계, 안전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지은정(2013)은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노후 설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인생 3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는 은퇴 후 건강하게 지내며,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가정과 직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은퇴까지의 시기인 2기의 인생에서 3기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여 3기 인생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그는 몇 가지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노후설계서비스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전 국민·전 생애정책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은퇴 및 노후 시기는 비노년기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 생애를 통해서 노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진단지표 보완·노후준비기준선도 설정할 수 있도록 개량적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재무와 비재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태순(2013)은 그의 연구에서 생애주기를 결혼준비기, 신혼기, 자녀 양육기, 자녀 성장기, 은퇴 준비기, 은퇴 생활기 등으로 구분하고 이 시기에 적절한 재무 설계 방식을 제안하였다. 수입곡선과 지출곡선이 교차하는 50대 초·중반을 ‘경제적 정년’이라 부르고,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인 중년기에 재무적 설계를 하여 현금흐름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은퇴준비만족 정도를 측정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sup>4)</sup> 이 연구소는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은퇴 준비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은퇴준비지수는 56.7점으로 ‘주의’단계로 평가되었다는 자료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데,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일과 여가, 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 건강, 일, 주거,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 6개 분야에 대한 노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5)</sup> 재무 설계는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의 6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표 1>과 같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내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자금을 산출해 내는 공식은  $S=a(1+r)^n$ 으로 나타내었다. 건강 설계는 연령별 건강로드맵을 제

4) Economic Review 2014. 9.22의 보도내용이며, 은퇴준비 종합점수 중 ‘0~49점: 위험, 50~69점: 주의, 70~100점: 양호 등급’이라고 하였다.

5) <http://csa.nps.or.kr/main.do#prev>.

시하고 있는데, 30대에는 노화에 대비하고, 40대에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권고하고, 50대는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므로 혈관을 젊고 갱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60대에는 노화를 되돌려 놓아야 할 시기로 근육 양과 근력 유지 및 호르몬 균형요법을 제시하였다. 일에 대해서는 일단 은퇴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기이므로 일에서 결별한 상태이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즐기는 활동영역에 참여하고 현직에서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야에 조연자나 상담자로 활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연령대별로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는 가족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관계로 나누어 생애주기에 맞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가 생활은 여행과 자원 봉사 활동을 권유하고 있다.

<표 1> 재무 설계 시 고려해야할 6 요소

	기간(n)	자금(a)	이율(r)
필요자금(S)	노후기간	생활비	물가상승률
준비자금(S)	준비기간	투자금액	투자수익률

## 2.3 한국인의 은퇴 준비 실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81.44세이며 1980년의 65.7세와 비교해 보면 약 26세가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노후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sup>6)</sup>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표 2>와 같다. 이 표의 노후준비의 영역은 경제적 준비, 대인관계 준비,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의 네 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데, 노후생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4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노후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준비 못함(1)	(2)	(3)	보통 (4)	(5)	(6)	매우 잘 준비(7)
경제적 준비	8.8	9.4	14.0	31.2	25.3	9.2	2.1
(만35~39세)	13.0	10.9	16.0	27.7	24.4	6.7	1.3
(만40~49세)	6.9	8.1	16.1	33.1	27.0	7.5	1.3
(만50~59세)	9.0	9.2	12.6	30.0	25.4	10.9	2.9
(만60~69세)	8.2	10.9	10.5	32.6	22.8	12.0	3.0
대인관계	9.0	11.5	13.8	39.1	18.2	7.1	1.3
(만35~39세)	12.6	14.3	18.1	35.3	14.7	4.2	0.8
(만40~49세)	8.2	10.7	12.9	44.2	15.7	7.5	0.7
(만50~59세)	7.8	11.5	13.2	36.7	22.6	6.7	1.5
(만60~69세)	9.4	10.5	12.7	36.7	18.4	9.7	2.6
건강관리	5.7	6.1	10.9	38.5	26.7	9.8	2.3
(만35~39세)	10.1	4.6	15.5	42.9	19.3	5.0	2.5
(만40~49세)	4.9	7.3	11.2	39.5	26.8	8.8	1.5
(만50~59세)	4.4	6.1	9.6	35.8	30.8	10.1	3.1
(만60~69세)	5.6	5.2	8.6	37.1	25.8	15.4	2.2

6) 통계청 자료; 2014. 10. 13(2013년 조사 기준)

여가생활	10.4	13.9	16.4	36.2	17.7	4.6	0.9
(만35~39세)	15.5	16.0	16.8	36.1	10.9	3.8	0.8
(만40~49세)	8.1	13.5	18.4	39.5	16.3	3.9	0.4
(만50~59세)	9.4	14.9	15.1	32.1	21.8	5.7	1.0
(만60~69세)	12.0	11.2	14.2	37.1	19.1	4.9	1.5

자료원: 통계청 자료(2014. 5.7.)를 연구자가 일부 조정하여 옮겼음

우리나라 20-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 자료는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sup>7)</sup> 이 기사에 의하면 20~30대 직장인의 33%가 "부모님 부양 계획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자녀 양육·나의 가정 꾸리기 등으로 부모님을 부양할 여유가 없어서(47.1%), '부모님이 저축 및 연금 등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29.4%), '경제적인 부분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7.8%), '나의 노후준비를 해야 하므로'(7.8%) 등의 순서가 제시 되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62.7%는 '부모들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서(37.1%)', '여유 시간을 즐길 취미활동이 없어서(19.9%),' '건강관리가 부족해서(15.4%),'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껴서(11.6%),' '함께 어울릴 친구와 친지가 부족해서(9.5%)' 등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곽인숙 등(2013)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전기(50대)와 후기(40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두변수의 하위 영역들은 직업, 여가, 재무, 은퇴노후 등의 네 개로 구성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인식과 준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설계 필요성 인식은 후기 베이비부머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역별로는 직업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여가, 재무의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후생활 준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종모 등(2013)은 은퇴준비 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와 관련된 교육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제시되었다.

### Ⅲ. 은퇴 준비에 대한 성경적 관점

#### 3.1 인생의 참된 은퇴준비: 영생을 준비하는 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의 시종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전도서 3:11), 여호와를 참 신으로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 많은 인간들은 참 신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계획을 하며, 마시고 즐거워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이 허사가 됨을 가르치셨다(누가복음 12: 16-20). 소출이 풍성해짐에 따라 심중에 고민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창고를 짓고, 자신의 삶에 대해 용의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정신없는

7) 한국경제신문 2013-11-08

자’, ‘무분별한 자’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임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시편 14:1)이라고 했다.(강병도 역, 1990). 이런 부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영생)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과 멸망의 지옥에서의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누가복음 16:19-31).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가 함께 살고 있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신의 괴로움을 덜 수 있도록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인간은 원래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창세기 1:26-28). 죄로 인해 하나님과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도,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인생의 참된 은퇴준비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요한복음 3:16).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헛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재물을 준비해서 ‘먹고 즐기자’ 하였으나 오늘 밤에 그 생명이 불림을 당하고 지옥에서의 영생을 한다면, 그 준비는 정말 헛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90:10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의 짧은 인생에서 영생을 준비하도록 알리고 가르치는 책임을 교회가 다해야 할 것이다.

### 3.2 재물 관리: 청지기 의식의 확립

재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곱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언 10:22).”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탐욕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디모데전서 6:10).”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전도서 5:18-20).”

사람은 이러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맡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은 고용인이나 대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강병도 역, 누가복음, 1990. p.458). 재물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거나, 인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누가복음 12:24-30).”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므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과부를 구제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으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큰 강령이라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누가복음 12:33-34)”고 강조하셨다.

또 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난해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빛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빛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빛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누가복음 16:1-9).” 해고를 당할 위기에 빠진 불의한 행동을 한 종업원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세상의 재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다’는 의미는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라는 것’이다.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친구”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다.<sup>8)</sup>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5:31-46).

### 3.3 건강 관리

8) 강병도 역, 호크마쥬석, 누가복음, 1990. p. 461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8)”라는 성경말씀이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주의 사역자로의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경건을 강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의 먹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세기 1:29).” 인류를 창조할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사람의 음식이 충분했을 것이다. 에덴동산에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죄로 오염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살 수 있는 있는 세상이 되었다. 스스로 농작하고 땅으로부터 수확되는 곡식을 먹어야 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 난 인간은 적어도 초기에는 이런 유형의 식품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인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 6:5-7).”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식구들 8명과 각 생물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움직이는 피조물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신 후에, 인류의 먹거리로 산 동물을 추가해 주셨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3-4).”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인간은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삶의 양식이 체질화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섭생에 관한 규례를 다시 명령하셨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는 사람이 먹어서는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장황할 정도로 기록해 놓았다. 그 중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동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생물, 날개가진 생물 중에서 가증하지 않은 것, 곤충 중에는 메뚜기, 종류, 베짖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팔중이 종류는 먹도록 하였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죄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온전한 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V. 교회의 역할

문헌연구를 살펴 본 결과 노후 준비는 대체로 재무, 건강, 소일거리, 사회적 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방향성이나 방법론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의 편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 필수적인 사항들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성경적 관점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런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편에서의 관점과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맞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괴리를 조정하고 좁혀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 4.1 구원의 확신을 심는 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2013)가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38.8%),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31.6%), 건강·재물·성공 등의 복을 위해(18.5%), 가족의 권유로(7.7%), 친교하기 위해(3.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1998년의 47.1%에서 15.5P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응답 비율은 73.2%(1998년)→77.1%(2004년)→63.2%(2012년)로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교회의 구원 방주 역할이 점점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도 불안 심리의 근원에서 우리나라의 불안 심리의 해소 차원에 있는 등 여타 종교와 유사하여 기독교가 종교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요섭(2009)은 칼빈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할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시기 위해 말씀을 가시적 교회에게 위임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의 교육에 맡기신 것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이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역사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범배, 2001). 사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동기를 가진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요 책임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5-36).”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4.2 공동체 의식의 강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전국 1인가구의 비율이 23.9%(약 414만 가구)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1.9%인 132만여 가구가 넘어섰다.<sup>9)</sup> 여기다가 이혼율의 상승과 황혼이혼, 도시로의 인구 유입 등으로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희박해져가는 무연사회(김범수, 2012)<sup>10)</sup>가 되어 가고 있다. 여기다가 교회조차도 양극화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호균(2007)은 인구의 도시 집중과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교회는 점점 양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회자 간의 갈등과 경쟁관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교인들이 작은 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수평이동하게 됨에 따라 대중 속에 묻혀 예배당만 출입하는 종교인이 되고, 그리하여 자기 일과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그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

9) 통계청, [www.kosis.kr](http://www.kosis.kr)

10) 무연사회(無緣社會)란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가 희박해져서 옆 집 사람의 죽음조차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단절되어 가는 사회를 일컫는 것임.

상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장 37-40).”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무연사회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는 이런 풍조를 극복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이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15장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도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공동체적 관계를 설명해 주셨다(요한복음 15: 1-27).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

권혁남(2013)은 교회를 ‘청지기적 돌봄’의 공동체 역할을 두 가지로 강조하였다. 첫째,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교회이다. 이는 교회가 생명을 살려서 그것을 지탱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물질은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므로, 이것들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사도행전 6:1). 교회 안에도 많은 고령자들이 있다. 먼저 교회 내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물론 교회마다 여건이 달라서 표준화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 운영, 효도관광 실시, 독거노인 돌봄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오히려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런 중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교인들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정교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함으로 고령의 교인들이 사회적 기관에 유출되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한일서 4:12)”

### 4.3 노인 공경에 대한 솔선수범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sup>11)</sup>, 우리나라 20~30대 직장인의 33.2%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자녀 양육과 가정 꾸리기 등으로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은 응답이라 하였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삶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먹을 것을 여름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배우라(잠언 6:5-8).”는 교훈이 있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다.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한 과정을 창세기 42장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총리대신 요셉의

11)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2013년 11월 8일

덕분에 그의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롯기서에는 가난한 홀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하는 롯의 이야기도 전개된다.

성경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계명에 제시해 놓고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라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정신적, 물질적인 부양을 함께 하는 것이다. 가족공동체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가르침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지는 않는다. 특히 목회자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교회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설교도 아버지주일이나 특별 헌신 예배 시의 주제가 되고 있는 등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 교회가 이 점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요섭(2009)은 그의 논문에서 칼빈의 교회론을 인용하여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요약하였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가르치는 “학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나 사회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교회가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개별지역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노회나 총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모범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4 건강한 영성 유지 강화

노후에 영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솔로몬을 들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되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겨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열왕기상 11:1-8).

영성은 노인들의 고독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수천 등(2014)은 영성을 ‘인간이 살아가는 습관과 원칙들로서 하나님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 상황에서 보다 큰 통합이나 해체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 신동민 등의 연구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이것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영성과 종교생활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윤현숙과 원성원, 2010).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요한복음 5:11) 삶의 만족이 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은 아마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데 기인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기도, 찬송, 말씀읽기와 듣기, 사랑의 나눔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노력들을 평균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들의 영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교회가 거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교회도 점점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교회가 고령 성도들의 영성 관리에도 주의를 경주할 시점이 되었다. 육체의 건강 연습과 더불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원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전도서 3:11).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29:18).”라고 기록된 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리하여

점을 보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물을 신으로 여겨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곧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베드로전서 5:8)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그를 통해 평안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극적인 영적 건강성에 교인들이 머물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성도들의 영성 프로그램의 제도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한국 사회의 100세 시대가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장수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2)</sup>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의 노인인구 비중은 15.7%(808만 명), 2030년에는 24.3%(1,270만 명)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sup>13)</sup>

이런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노인인구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고, 정부는 나름대로 장년고용지원사업을 펼쳐, 고용연장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장년취업인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의 정책과 더불어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정년연장, 퇴직연금의 확대 실시, 파트타임 활성화 등의 조치로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거국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관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그 동안에 은퇴 준비에 관한 문헌 연구와 성경에서는 노후 관리에 대해 어떤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지식의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문헌연구 검토에서는 은퇴의 개념과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 내용 및 한국인의 은퇴 준비 실태에 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은퇴 준비를 위해 재무적 준비, 건강관리, 여가활용, 인간관계 유지 등이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은퇴 준비 영역들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은 한결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인간중심적인 것이요 후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교회의 역할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런 삶은 한시적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런 짧은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12) 한국경제신문, 2014. 8.19

13) 통계청 인구추계(2010).

이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 공동체 의식의 강화, 노인공경에 대한 솔선수범, 건강한 영성 유지 강화 등을 교회의 역할로 제시해 보았다.

물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런 주장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내린 결과들과 유사할 수 있고, 연구자 개인적인 주장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노인학이나 신학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결과들이 교회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면 본 연구는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미흡한 점들은 여러 교회들의 상황이 반영된 실증연구가 이어져 보완되어 나가기를 희구한다.

## <참고문헌>

- 강병도 역, 호크마종합주석, 기독지혜사, 1990.
- 곽인숙, 홍성희,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 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17권 2호(2013), 47-172.
- 권혁남, “유대관계 상실의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과 실천, 36권(2013. 9.), 747-786.
- 김요섭,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의 교회의 역할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52권(2009), 37-63.
- 박정식, “은퇴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주관적 인식 및 생활 만족도 관계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범수 역, 무연사회, 용오름출판사, 2012.
- 김시원, 이용하, 강성호, 김정은, 정일영 “제1차(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 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06.
- 김요섭,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의 교회의 역할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52권(2009), 37-63.
- 김종모, 박상범, “은퇴준비인식이 경제적 준비상황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관리연구, 제24권2호(2013), 143-181.
- 박창제,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59(2013. 3), 115-138
- 신호균,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과 실천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제5권 제1호(2007.5), 1-19.
- 여윤경, “개인은퇴준비지수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3호(2011), 33-68.
- 윤형숙, 원성원,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2010), 1077-1093.
- 이범배, 조직신학, 새한기획출판부, 2001.
- 이수찬, 강선옥, 장미정, 윤승비,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영성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4(2014.6), 139-161.
- 이재성, 안준기, “은퇴결정요인 및 은퇴 후 소비에 관한 연구-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한 분

- 석,”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8, 164-183.
- 임태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4호 (2013.12), 113-128.
-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지은정, “우리나라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연구*, 29(4), 2013, 249-283.
- Barrett, G. F. and Kecmanovic, M. Subjective well-being in retirement: Evidence from HILDA, 2011.
- Felce, David and Perry, Jonathan,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1995), 51-74.
- Felce, David and Perry, Jonathan,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Schalock, Robert L. Ed, *Quality of Life. Volume 1,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Washington: American, 1996.
-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Gullemard, Anne-Marie, and Rein, Martin, Comparative Patterns of Retirement: Recent Trends in Developed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993), 469-503.
- Hagerty, Michael R, Cummins, Robert A, Ferriss, Abbott L, Land, Kenneth, Michalos, Alex C, Peterson, Mark, Sharpe, Andrew, Sirgy, M Joseph, and Vogel, Joachim,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2001), 1-96.
- Hodges, Linda,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Ph.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2004.
- Nimrod, Galit, *Retirees's Leisure: Activities, Benefits, and Their contribution to Life Satisfaction*, *Leisure Studies*, 26(1)(2007), 65-80
- [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http://www.kpastor.org/news>